

Venture in, 벤처스

→ Enjoy Venture ©© 이쓰리넷 여성동호회 '일당백'

“우먼파워 시대, 우리가 이끌어요”

“여 자라서 행복해요.” 남성이 중심인 IT업계, 특히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는 모바일 분야. 대개 여성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 동화되기 십상인 이 바닥에서 여성이 활개를 치는 곳이 있었으니, ‘동전 쌓기’ 게임으로 모바일게임 분야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는 이쓰리넷이다.

이쓰리넷은 남성이 주도하는 여느 IT기업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사내 인테리어와 쾌적한 공기, 부드러운 직원들의 미소 등 사내 곳곳에 어머니의 따스함이 배어 있다. 비결은 다름 아닌, 이쓰리넷 여직원이면 자동 가입된다는 ‘일당백’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란단.

기업 대표가 여성이기 때문일까. 전 직원 38명 중 여직원은 성영숙 대표까지 모두 10명으로 다른 IT기업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일당백’이 생기면서 여성파워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각 팀으로 분리돼 있어 서로 대화가 부족했던 여직원들은 두 달에 한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남자직원들은 담배 피우러 나가서라도 대화를 하지만 여직원들은 함께 모일 기회가 없어 항상 이런 모임을 꿈꿔왔죠.”

회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다. 직장여성으로 힘들었던 점, 업무하면서 어려운 점 등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각 팀의 업무 고충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또한 회원 한 명이 매너교육, 블루오션 교육 등과 같은 여성특화 교육을 듣고 와서 다른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 몫 하기도 한다.

올해 5월 열린 워크숍에서는 ‘일당백’이 앞장서 행사를 진행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자직원들이 주도하던 축구, 피구와는 달랐다. 팔씨름, 닭싸움, 과자 따먹기 게임 등 여직원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여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늘었다. 마케팅부 정지연 팀장은 “남자직원들도 이제 일당백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여성동호회가 계속 유지되는 데는 정신적, 물질적 지주인 성영숙 대표의 지원이 빠지지 않는다. 2005 APEC 여성CEO포럼에서 ‘한국 여

성CEO 성공사례’로 꼽힌 성대표는 몸소 ‘일당백’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한다.

오는 10월이면 1주년을 맞이하는 이쓰리넷 ‘일당백’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소박한 계획이 있다. 먼저 사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위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통한 지식 공유를 계획하고 있다. 여성의 섬세함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한 이쓰리넷 ‘일당백’은 IT업계에 부드러운 여성파워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